AED보급·교육, '안전사찰' 만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17일
교구본사에 제세동기 지원

10월까지 매달4~5곳 설치
응급처치 매뉴얼·훈련필요
교육진행·현장 점검 예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사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스님들과 라이나전성기재단 관계자들이 AED 지원물품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불교계가 사찰 내 신도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심장제세동기 설치에 본격 나섰다. 본지가 2016년 8월 심장제세동기(AED) 설치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이뤄진 움직임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묘장)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라이나전성기재단으로부터 심장제세동기 29대를 지원받아 교구본사 등 전국 29개 사찰에 이를 보급하기로 했다.

AED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묘장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사회부장 진각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AED를 지원한 라이나전성기재단은 라이나생명이 2013년 5월 설립한 공익 재단으로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2016년 8월 본지 실태조사 결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템플스테이 124곳 중 단 10곳만이 AED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응급차량 진입이 힘든 사찰이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도 이후 2017년 1월 조계사가 대중 스님들과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 및 심장제세동기 작동법 실습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이 일었다.

이날 AED전달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시간이 늦어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움을 해소하는데 이 협약이 가장 능률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문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는 "전통사찰의 경우 많은 관광객이 찾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지만 교통이 불편해 응급사태 시 위험하다. 사찰에 안전설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기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라이나전성기재단 측 관계자들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등은 조계사 경내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 설치 현장과 이날 함께 진행된 조계사 신도대중의 심장제세동기 사용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

이날 이후 전국 교구본사에는 10월까지 매달 4~5곳에 순차적으로 스탠드형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계의 안전시설 인프라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신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앞서 배석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B사찰의 경우 3000배를 하시던 70세 고령의 어르신이 심정지로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을 했지만 결국 돌아가셨다. 이후 사찰 측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며 "사찰을 찾는 불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기 설치 외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한 국내 최대 유통마트에서는 계산대 직원이 심장질환으로 숨지며 이에 대해 사측과 유가족 및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당시 이 매장에 설치된 심장제세동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조계사 AED실습교육을 진행한 권정주 대한인명구조협회 강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과 함께 AED 사용을 숙지하는 교육과 응급환자 발생 초기대응 매뉴얼, 교육훈련 등이 중요하다. 설치업체에서 AED배터리 등을 관리하지만 대중들이 작동법을 숙지해야 이 관리 또한 원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교구본사 심장제세동기 설치와 함께 교육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찰별 민관합동소방훈련과 연계해 종무원 및 신도대상 교육,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점검 현황보고 등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배려가 장애인, 사찰로 이끈다

'250만 장애인 시대, 불교는'

③ 장애인 신행활동 활성화 조건


4월 14일 조계사 스님들이 휠체어를 법당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임시경사로·카펫 설치
수화 찬불가, 입식 의자 등
배려로 신심 증장 이끌어

비가 와도,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경사로에도 장애인 불자들의 신심을 꺾지는 못했다. 서울 조계사는 4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장애인불자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사 원심회·사회복지법인 승가원·사회복지법인 연화원·장애인 불자모임 보리수 아래·혜광맹인불자회 회원 등 사부대중 160여명이 함께 했다.

우중에도 이처럼 많은 장애인불자 대중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대법회에 조계사 측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었다.

젖은 흙길에는 임시 방수천이 설치되고, 내부에도 카펫이 깔렸다. 조계사는 휠체어 경사를 완화한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스님들이 직접 비에 젖은 휠체어를 닦고, 함께 법당까지 도왔다. 부족한 점자 블록판 대신 봉사자들이 손으로 잡고 함께 이끌었다. 또 수화 통역사들과 수화 합창단이 장애인 불자들이 함께 찬불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왔다. 기존에 법당에 자리한 신도들도 서슴없이 자리를 비켜줬다.

광림사 연화회 해성 스님은 "보통 사찰의 경우 기도를 하시는 보살님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등 평소에 장애인 불자들이 법당에 가도 불편한 상황이 많다"며 "기성 신도 대중이 조금씩 마음을 내줘야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 오늘 비가 와 젖은 흙길이어서 휠체어를 밀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방수천을 설치하는 등 배려가 좋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비록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사찰로 나와준 장애인불자들에게 감사하다. 또 함께 배려해준 일반 신도대중들에게도 감사하다"며 "하나씩 장애인불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함께 어우러지는 신행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윽고 진행된 법회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은 그야말로 장애인불자들의 눈물이 섞인 자리였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향공양을 올린 이순애 씨부터 꽃공양을 올린 시각장애인 강태봉 씨, 과일공양을 올린 발달장애인 김진상 군 등 봉사자와 함께 차례로 공양을 올린 이들은 감동 섞인 소감을 밝혔다.

이순애 씨는 "예전부터 사찰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 경사로도 놓고 좀 비좁지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법회를 찾은 장애인 불자들에게 직접 단주를 채워주고 공로상도 시상했다.

행사는 장애인 불자들의 발원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홍현승 보리수 아래 회원은 대표로 "혜안을 가진 아나율존자처럼, 한결같아 깨달은 주리반특처럼 장애를 수행의 벗으로 삼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신심을 담은 발원에 대중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한편,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일반인들의 시각장애인 이동체험과 장애 보조 기구 체험 등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단돈 만원으로 즐기는 산사의 고즈넉함

단돈 1만원으로 산사의 고즈넉함을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봄 여행주간을 맞아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봄 여행주간에 맞춰 전국 103개 사찰(수도권29·전라도24·강원도9·경상도26·충청도15)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참가대상은 내외국인 선착순 8000명. 예약은 5월 12일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서 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사찰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휴식형과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체험형으로 구분된다.

체험형 운영사찰은 총 36곳이며, 휴식형 운영사찰은 산과 남해바다가 품은 해남 미황사, 수려한 전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구례 화엄사 등 67곳이 있다. (02)2031-2000

윤호섭 기자

참불선원 개원 5주년… 고승 초청 법회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법문

명상수행을 통한 서울 강남 도심포교에 앞장서는 참불선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한국불교계 고승을 초청해 기념법회를 열고, 최근 확장한 도량 현판식도 실시했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4월 13일 개원 5주년 기념법회〈사진〉를 봉행,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했다. 법회에는 前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철산 스님, 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 수좌회 선림위원 선법 스님을 비롯한 수좌스님들과 숭산 스님 외국인 제자인 청안 스님(헝가리 원광사 주지),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스리랑카 출신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재가불자 등 10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기념법회에 앞서 기존 건물 3층을 사용하던 참불선원은 최근 2~4층까지 도량을 확장한데 대해 현판식과 큰법당에 조성한 천불



점안식을 실시했다.

이날 각산 스님 은사인 보광 스님은 증명법사로 나서 즉심즉불(卽心卽佛)을 강조하고 "불지견(佛知見)은 바로 다만 너의 마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달리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이라고 법문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현대인은 상식이 풍부하지만 이를 지식으로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 또 지식의 인간화를 하지 않아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식의 지식화, 지식의 인간화를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수행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회 말미에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도량 확장에 힘써준 신도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고 "참선은 명상의 완성이자 종교의 귀결이다. 도량이 과거보다 넓어져 누구든지 편안하게 찾아와 수행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참된 불교가 참된 불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불선원은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간화선 특별 집중수행과 함께 '선승, 육조단경 대법회'를 참불선원서 개최했다. 법회에는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차례로 간화선맥의 근본 텍스트인 〈육조단경〉을 주제로 법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